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0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8.

발 의 자 : 김태년 · 이훈기 · 황명선
손명수 · 박용갑 · 전현희
정준호 · 임호선 · 김영진
김영배 · 김한규 · 이학영
전진숙 · 이기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·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다양한 중·소기업 사업주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,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중·소기업 사업주 등의 폭넓은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.

이에 현행 규정에서 중·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

촌 이내의 친족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중·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124조).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4조제1항 중 “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”을 “자기 또는 유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”를 “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신청 및 승인”을 “신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4조(중·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·소기업 사업주(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<u>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</u>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	제124조(중·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자기 또는 유족</u>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(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<u>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</u>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노무를 제공하는 사람</u> ----- -----.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·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 산정, 보험 가입의 <u>신청 및 승인</u> ,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, 보	⑧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신청</u> ----- -----

험 관계의 소멸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----- ----- -----.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